

빛 못갠아 車·중장비 경매처분 '역대 최고'

8월까지 광주지법 신규 300대 등록 전년비 40% ↑

혈값에도 2대중 1대도 안팔려...경기침체 방증

장기적인 불황으로 법원 경매에 부처지는 차량과 중기(중장비 건설기계)가 연일 증가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진행되는 일반 경매와는 달리 법원 경매는 대부분 채무가 엮여 있어 법원 경매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4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광주지방법원에 신규로 나온 경매 차량과 중기는 300여대를 넘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 경매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500건을 넘어

선 이후 2014년 639대, 2015년에는 700대를 돌파해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500여대가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안에 800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자동차 경매도 아파트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엔 리스나 할부가 활성화되면서 손쉽게 차를 샀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창중 지지옥션 경매전문센터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법원 경매에 나오는

차량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며 "과태료와 보험료는 물론 이제는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해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동차 할부 금융 혜택이 늘어나며 목돈 없이도 고가의 수입차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원금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차량이 그만큼 증가한 것이다. 싼값에 경매로 올라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를 뜻하는 낙찰률의 경우 2011년 43.1%를 시작으로 2건 중 1건도 팔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설령 팔리더라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법원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은 4025대의 총 감정가는 역대 최

고액인 590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금액은 466억원에 그쳤다. 낙찰가율 역시 79%를 기록해 사상 첫 80% 밑으로 떨어졌다.

경매 업계 관계자는 "차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며 경매로 넘겨 채무를 해결하려는 채권자들이 늘고 있다"며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차를 살 수 있는 데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역시 경기침체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전국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차량 물건수는 6500여건으로, 지난해 연간 총 낙찰건수 9500여건의 70%에 다다르고 있다. 올해 남은 5개월을 감안하면 법원경매 차량 물건수는 지난해보다 20~30% 가량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추석 연휴 늘고 상여금은 줄고

연휴 0.5일 늘어 4.5일...기업 지급계획 71% 전년비 4.8%P ↓

경기불황으로 올해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작년보다 줄어든 가운데, 근로자들이 받을 상여금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연휴도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373개 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2016년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연휴는 4.5일로 작년보다 0.5일 늘었다. 이는 추석연휴가 주말인 토, 일요일과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연휴일수는 4.7일, 300인 미만 기업은 4.3일로 집계돼 전년보다 각각 0.6일, 0.4일 증가했다.

올해 상여금은 작년보다 3만원(3%)

증가한 104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상여금 121만5000원, 300인 미만 기업은 상여금 99만4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응답 기업의 70.8%로 전년(75.6%)보다 4.8%포인트 감소했다. 300인 이상 기업은 75.3%, 300인 미만 기업은 69.6%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밝혀 작년보다 각각 2.6%포인트, 5.4%포인트 줄었다.

올해 추석 경기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이 67.3%(약화 48.8%-매우 약화 18.5%)로 높게 나타났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27.9%, '개선했다'는 4.8%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통조림, 추석 선물 판매 1위

대형마트 한달간 45만개 팔려

올해 대형마트에서 준비한 추석 선물세트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대표적인 '서민형 선물'이자 법인들의 대량 구매가 많은 통조림이었다.

4일 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45만개 가까이 팔린 참치, 햄 등 통조림 선물세트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36만개가 팔린 조미료 선물세트였고 3위는 삼푸·보디로션 등으로 구성된 생활용품 세트(15만6천개), 4위는 커피 세트(15만개), 5위는 양말 세트(4만7천개) 등이었다.

특히 지난해 추석과 비교할 때 이마트의 사전예약 판매 기간 전체 매출 신장률은 11%였는데 통조림(19.9%), 조미료(19.4%) 등 저가 실속형 선물세트의 매출은 20% 가까이 신장해 증가 폭이 훨씬 컸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71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4 11 20 23 32 39	40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926,166,464	1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1,002,162	64
3 5개 숫자일치	1,091,572	2,404
4 4개 숫자일치	50,000	114,614
5 3개 숫자일치	5,000	1,595,315



한전은 지난 2일 서울 코리안호텔에서 케냐 원자력위원회와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콜린스 고든 운동가 주마 케냐원자력청장, 유항열 한국전력 해외부사장, 김인식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KNA) 회장, 오세기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총장.

한국 원전기술 케냐 밝힌다

한전, 원자력 협력 MOU...사업개발·인력양성 등

한국전력이 지난 2일 서울 코리안호텔에서 케냐 원자력위원회와 원자력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원자력 정책과 사업개발, 원전 설계·건설·운영·유지 보수, 원전 분야 신기술·인력양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에는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도 함께 참여했다.

앞서 한전과 케냐는 2012년부터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케냐는 현재 전체 국민 4500만명 가운데 약 2300만명만이 전력 공급 혜택을 받고 있다.

수력(36%)·화력(35%)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독립발전사업자(IPP)가 전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어 에너지 생산 가격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케냐는 2033년까지 4000MW 규모의 원전 도입을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준비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MOU 체결을 위해 방한한 찰스 체리엇 케터 케냐 석유에너지부 장관 등 대표단 일행은 신고리 원전 등 국내 원전 주요 시설을 방문해 한국의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을 확인했다. 아울러 원자력 협력 세미나도 개최해 양국의 원자력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항열 한전 해외부사장은 "케냐의 원전 준비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전 인력양성 현지화와 재원 조달 등에서 한전의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며 "케냐의 정책 수립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강보청기 추석 보상 판매

제품 구입시 모델 업그레이드

금강보청기(대표 선명진)는 추석을 맞아 다음달 말까지 전국 110개 대리점에서 보상판매 이벤트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사용하던 보청기를 반납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면 한 단계 상위 모델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벤트이다.

금강보청기는 이번 행사에서 K-시리즈<사진>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품은 난청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강보청기의 혁신적 기술이 적용됐다. 어음 조절, 음악 강화 기능, 난청과 이명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개선된 부분이다. 미



국 스타키의 운영체제 등을 도입, 사용자 맞춤형으로 소리를 조절할 수도 있다. 반납하는 보청기는 작동여부, 모델, 형태 불문 이벤트에 해당되며, 반납된 보청기는 수리연구용이나, 저소득 불우 난청인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문의 전국 1588-5233. /김대성기자bigkim@

새얼굴

"광융합 기술 개발 4차 산업혁명 선도"

김영선 한국광기술원 원장



"새로운 정보통신기술(ICT) 파도에 기반을 둔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분야의 지속적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5일자로 취임하는 김영선(59) 한국광기술원 원장은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조직문화를 활성화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광융합산업 생태계를 조성,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1982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연구원으로 입사, 기술기획실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호

남연구센터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재직 동안 국내 정보통신망 계획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 세계최초 CDMA 상용화의 기반을 제공한 전자교환기 개발에 기여하는 등 광통신전문가로 활동해왔다. 김 원장은 고려대 전자공학박사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